



여텔리에 세르베스에서 열린
OK W.Complex 전시공간
익찬경 (미분) (원탁) 설치 2012
내셔널 나치 (45도북) (오른쪽) 설치 2012



K . W . C O M P L E X

서울 신사동 아몰리에 에르메스에서 프랑스 작가 니타사 니직과 한국 작가 박찬경의 공동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K.W.Complex>(10.26-12.18)가 그것. 두 작가는 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신부의 서적과 영상에서 출발해 한국과 유럽 사이에 복잡하게 뒤엉킨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위 - 박찬경 <김금화와의 나누는 대화> 스텝 컷 비디오 25분 2012
 (김금화 계몽) 황해도 무속의 전통을 이은 만산 김금화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한국인들이 문화적 결핍을 보여준다.
 아래 - 박찬경 <여론> 내무모습 설치 2012
 다산고택이고 이기지가에게 신을 불러내 속삭이고 물고 신들이 모여
 지는다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전시제작 (K.W. Complex)에서 K는 김금화를 W는 웨버(노르베르크 베버)를 지칭한다.
 K와 W사이의 얽힌 단면의 중심에는 연드레아 힐프가 있다.





위 · 나리사 나직 <인드레아> 비디오 설치 5개 스크린 HD 스테레오 각 10분 2012
 아래 · 나리사 나직 <인드레아> 스틸컷 2012
 김경희의 신발로 삼프 오틸리엔 수도원 인근에 거주하는 인드레아 할프의 삶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리사 나직이 글로벌한 입장에서 자민족 중심의 서구적 시각에서 할프의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작품이다.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인류학적 보고서

이슬비 본지기자

두 작가가 한 공간에서 각자의 작업을 선보이는 2인전은 흔하지만 국적으로 선행도 다른 두 사람이 유기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2010년 도쿄도 사진미술관에서 열린 영화제의 한 세션에 프랑스 작가 니타샤 니지과 한국 작가 박찬경의 영상작업이 나란히 상영됐다. 당시 '신의 이름으로: 믿음의 몸(In the Name of God: The Body of Faith)'이란 주제가 두 작가를 묶는 끈이었다. 니지는 최후와 단결된 제 프랑스 가르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의 일상을 담은 <가르멜>을 출품했고, 박찬경은 계몽산도착 종교집단들의 흥행사를 담은 <선도안>을 선보였다. 비슷한 나이인 그들은 관심사도 유사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박찬경은 니지의 이전 작품을 찾아보고는 한국과 프랑스라는 국적을 초월한 동년대의 역사적 인식과 감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니지의 작업이 역사적인 안목이 깊고 사회 비평적이라고 덧붙였다. 니지는 그 무렵 작가로서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가르멜〉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도주하면서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고 어떤 비평적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박찬경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선도안>이 미술을 그만두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찍은 작품이라고 고백했다. 이에 니지는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이지만 사실 작품의 구조적인 면에서 비평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박찬경의 작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회담했다. 박찬경의 작업이 내용은 낯설었지만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종교적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폭력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박찬경은 니지와 작업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한 신부의 서적과 영화를 그녀에게 보냈다고 한다. 독일인 신부이자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장인 노르베르트 베이(1870~1956)는 1911년과 1925년 두 차례 조선을 방문했고 조선의 다양한 풍속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책과 동명의 35mm 영화 필름에 담았다. 두 작가는 독일 남성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에 매료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니지는 "베이가 당시 조선의 모습에 매혹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책 뒷부분을 보면 철저한 제국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을 바라보는 베이의 시선에 내재된 모순적 태도가 흥미롭다"고 말했다. 박찬경은 1920년대 조선의 모습을 찍은 베이의 영화를 보고 마치 유럽의 귀환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는 미

소를 머금으며 설명을 계속했다. "사진과 영화는 원래 그 속상상할 영자가 모든 장면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을 떠올리면 보통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데 영화에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춤추고 노는 모습 등 사랄스러운 장면이 많다. 베이의 제국주의적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을 모아 작업했다. 베이의 이 대를로기를 간어했다고 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간어했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장면이 내재된 부드러운 지향이라 할 수 있겠다."

두 작가는 서구 남성인 베이 신부에서 출발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두 명의 여성 무속인을 조명하며 작업의 진폭을 넓혔다. 박찬경은 베이의 대적장에 황해도 무속의 진용을 이은 만신 김금화를 위치시키고 한국의 무속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작업 <김금화와 나누는 대화>를 선보였다. 1980년대 TV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방청객들은 김금화에게 '작두는 신이 내려야만 할 수 있는 거?' '무속은 미신인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이에 작가는 김금화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대신 김금화의 곳 장면을 넣었다. 박찬경은 "교차된 것처럼 딱딱 맞지는 않지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구성했다. 사실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결핍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굿을 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노래나 몸짓이라는 문화적 형식 속에 담이 다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속 김금화의 모습은 사람들의 한(恨)과 눈물을 보듬는 치유자이자 만능엔터테이너에 가깝다.

니지는 김금화의 신발로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인근에 거주하는 안드레아 캄프에 초점을 맞추었다. 캄프가 살고 있는 독일 남부 바이리아 지역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곳으로 마녀를 배척하는 성

노르베르트 베이 (고요한 아침에 나라에서)라는 책이 동명의 영화를 편집한 니타샤 니지, 박찬경의 사진영상 설치 작업 2012





나타샤 니치(Natasha Nitch)은 1967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출생했다.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고 베를린 독일 영화&TV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현재 프랑스 릴리프로서 거주하며 프랑스 국립고등학교에서 영화와 미디어아트를 강의한다. 2013년 10월에 파리 루드 롬 미술관에서 <안드레아>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관경**은 1965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에서 사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예르베스르다미 미술상, 제1회 베를린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3년에 그동안 은이해온 김금화의 전기 영화 <간신>을 개봉할 계획이다.

말이 같하다. 그림에도 칼르는 용기를 내어 김금화의 도움으로 무속인이 되었다. 니치는 "유립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 작업은 굉장히 도전적인 면이 있다. 글로벌한 입장에서 자민족 중심의 사구적 시각에서 탈피해 세계를 다룬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베버와 김금화, 칼르라는 세 인물을 통해 민족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등이 동서를 교차하며 작용된 상태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을 이끄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안드레아 칼르'라는 존재는 사구의 시각에 한국이 더욱 심비로운 세계로 비치게 하고, 한국인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원권으로는 표현보상 심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에 박관경은 "오리엔탈리즘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동양문화를 서양인이 좋아할 만한 코드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자기 소개하면서 스스로가 외부인

의 시각에 따라 위치지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어중소외인 것이다. 이 작업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소외됐는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反) 오리엔탈리즘적이라 할 수 있다. 남관주의는 외국의 문화나 동양의 문화를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버의 관점이 그렇다. 반면 칼르가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믿음과 종교세계에서는 개인의 필박함이 있을 뿐이란 점에 있다. 그것이 아닐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난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니치는 자신은 오리엔탈리즘을 언급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라며 "유립인들이 이 작업을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익숙하지 않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문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는 영상작업 외에 다양한 설치작업도 돋보였다. 박관경의 <외눈>은 다신교적이고 아기가 하계 신을 붙여내 속삭이고 울고 신들이 모여 외눈하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박관경은 "모자들 베버의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무속인들이 여러 조상신을 모실 때 쓰는 것"이며 "그 주변을 둘러싼 병풍들은 유교식으로 홍합(紅簾)이라고 해서 제사 도중에 조상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병풍을 치는 것에서 착안했다"고 말한다. 기자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기 위해 병풍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작가가 불준다. 대신 잘 안 보이더라도 나지막한 병풍 위에서 앉을 듯이 따뜻이 찍으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이 우리 세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설치작업은 우리가 그들의 세계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 옆에는 니치의 거대한 일신교적인 수도사의 옷이 걸려있다. 이 두 작품은 미리 상의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조화로운 협업작품이 되었다고 한다.

박관경은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는 '가톨릭이나 무속이나'라는 종교에 관해 질문보다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문화, 종교에 얽힌 관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니치는 이번 작업의 포인트는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베버의 책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박관경은 그림을 볼 수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독일어는 알지만 한국어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 영화는 이와 반대로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처음에는 박관경이 왜 김금화를 탐구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신랄한 칼르를 알게 되면서 나는 어느새 한국의 문화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반대로 내가 안드레아를 작업할 때는 박관경이 독일에 건너왔고 그는 독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마도 서로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무언가를 향해 다가가는 열린 방식이 아닐로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서 공감하고 힘을 얻은 원천일 것이다. ●